2年生～4年生 課題文③

 **출렁출렁**

이러다 지각하겠다 싶을 때,

있는 힘껏 길을 잡아당기면 출렁출렁,

학교가 우리 앞으로 온다.

춥고 배고파 죽겠다 싶을 때,

있는 힘껏 길을 잡아당기면 출렁출렁,

 저녁을 차린 우리 집이 버스 정류장 앞으로 온다.

갑자기 니가 보고 싶을 때,

있는 힘껏 길을 잡아당기면 출렁출렁,

 그리운 니가 내게 안겨 온다.

출처 : 『난 빨강』 박성우 동시집, 박성우 지음

ゆらゆら

このままだとしてしまう、
をとゆらゆらとがのにやってくる。

、
をとゆらゆらとがのがバスのにやってくる。

にが、
をとゆらゆらとがについてくる。

引用：『私は赤』パク・ソンウ童詩集、パク・ソンウ著